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 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자인하고 피조물 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소스토스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소스토스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 빛이 비취지 않을지언정 크리소스토스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흥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제77주년 감사주일이며, 총회가 제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성도간 인사는 목례로 해 주시고, 8층 식당에서는 꼭 지정석을 지켜 주시되, 식사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더욱 평안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바랍니다.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복음적 기독교 가치관을 잘 구비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81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미래를 위한 결단 ”

■ 사무엘하 23:1-7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후대의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려서 왕으로 선택받고 모략과 시기 때문에 박해와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일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긴 통치자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지막 말을 남긴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속가능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고한 정체성
 1절에서 그는 여러 면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며 일생을 찬송하며 살아온 신앙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하고 이 정체성 확인에서 자기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야합니다. 다윗은 태생적 정체성인 이새의 아들, 사회적 정체성인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3중의 정체성 모두에 충실했습니다. 때로는 이 정체성 확인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역사가 발전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매우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고, 하나님 은혜로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로 선교국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전쟁 후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나라가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에 걸맞는 나라와 사회로 발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 발전의 두 기둥 : 정의와 신앙
 3절에서 발전의 근본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경건한 신앙이 개인과 사회, 나라를 발전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흔히 신앙을 이유로 정의를 소홀히 생각하고 정의를 이유로 신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발전에 건전한 가치관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이 필요하듯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신앙과 정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유대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원인을 왕하 24장에 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고 사회적 공의를 무시하며 무죄한 국민들의 피를 수없이 흘렸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렸고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역할과 공적인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신앙이라는 이 두 기둥을 붙들면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3. 견고한 비전
 4,5절에서 다윗은 나라의 앞날이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견고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최근 지도자들의 국가비전이 의심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정체성이 훼손된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어디로 가려는지 방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국민들도 각자의 이익에는 매우 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미래는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여야 합니다. 공동선의 우선과제는 평화입니다. 정전협정 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투쟁과 대결의 모습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더욱 복음증거에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시 간	인 도	기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이민호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이강인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02(나라사랑)...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29(48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삼하 23: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미래를 위한 결단”...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8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김익환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5:1-3 인 도 자
찬 송	31(46) 다 함 께
기 도	이원석 집사
찬 송	220(278) 다 함 께
성 경	요 13:34-3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제자의 품격” 설 교 자
* 찬 송	218(36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박영실 권사 II부: 김양희 권사
성 경 왕상 1: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야망의 시험”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정기당회 / 14일(주일) 오전 8시 402호
- 에스더 전도회 8월 월례회 / 17일(수) 오후 1시 802호
- 스데반회 월례회 / 20일(토) 오후 3시 101호(웨민홀)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총회 제정 -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
오늘은 광복절 77주년 감사주일이며, 교단 총회가 제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p>13. 세례 교육 및 문답 - 금년도 세 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8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례 교육 :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602호 - 세례 문답 : 8월 14일(주일) 오후 2시 609호 <p>*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p>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49명	399명	1,948명	410명	2,403명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우리는 바야흐로 자기 남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칭 이 시대의 선지자요 능력의 사자며 민족의 지도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후보를 수출할 만큼 그 수가 많다는 것은 일꾼이 많이 있다는 뜻도 되겠으나 그 보다는 어물전에 꼴뚜기들이 많다는 뜻도 된다. 예레미야는 영광스런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주저했으며 사울은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고 있었을 때 행구 사이에 숨어 버렸다.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노라 하고 광야로 물러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앞에 끌어내셨고 지도자로 세우셨다. 지도자는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돌보아야 한다.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삼하 23:4)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